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실무수습 활동 후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

나눔과 이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굉장히 알차게 프로그램을 꾸려 주셔서 다 소개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인상 깊었던 활동 위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형사재판 의뢰인을 직접 면담한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지만 만 24세 이하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여 저희 기관의 활동에 함께하였습니다. 첫 날 진행된 활동이었는데, 실제 의뢰인을 대면하고 CCTV 영상을 함께 분석하며 철저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증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익히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의견이 바로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될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보람찼던 활동이었습니다.

★

다음으로, 저희 기관의 주요 관심분야였던 청소년 관련 활동입니다. 이 챕터는 저희가 진행한 활동도 많고 인상깊었던 활동이 많은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저희의 과제이기도 했던 소년보호재판 보조인 의견서 작성입니다. 우범소년 통고제도와 관련한 사건이었는데, 실제 사건 기록을 접하고 변호사님의 사건 소개를 들으며 사건 속에 들어간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범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 일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폭력 등의 범위에 노출되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청소년들을 위해 더 적절한 조치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관련 기관인 청소년 행복재단 방문으로, 실제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벗어나는 발단은 어른들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학대로 인해 아이들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밥을 허겁지겁 먹고, 아픈 것을 숨기며, 학대를 당했음에도 그것이 학대인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왜 신고를 하는지 의문을 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른들에게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사회를 마냥 차갑게만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 당사자에게 직접 청소년 주거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저번주 금요일에 위기청소년 아웃리치 활동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텐데 개인적으로 서유진 변호사님께 요청드려서 나눔과 이음에서의 일정을 조정하고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을 하는 청개구리 식당에 가서 직접 위기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공익사단법인 정과 함께 진행한 활동으로, 로펌 공익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받고 실무수습생들끼리 네트워킹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단법인 정과 나눔과 이음에서 진행하는 탈북민 지원에 대한 소개를 받고 FSI대표님으로부터 그 실태에 대한 강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었는데, 그들이 실제 남한 사회에서 영어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는다는 것, 북한에서는 범죄가 아니었던 마약이 남한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등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슈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프로보노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법무법인 세종의 정현서 변호사님을 만나 로펌 업무와 프로보노 활동의 양립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로펌 업무를 하는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이 많아 예정시간보다 긴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는데, 예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선뜻 답해 주셔서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 중 소개 드리지 못한 것으로 저희의 첫 일정이었던 광화문 초목 기부행사가 있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및 각종 기업 총수들, 세종 및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으리으리한 행사에 초대받아 "아 역시 나눔과 이음이 빅핼 산하에 있구나,"라는 것을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은 으쩍 우리 서유진 변호사님이 쏜 맛있는 밥과 디저트, 그리고 저희 오는 첫 날에 준비해주신 기념품으로 비온다고 센스있게 골라주신 우산과 에코백, 마지막으로 펠트 커피의 드립백까지 선물로 주셔서 양손 두둑히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랑입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짱이에요!

★

이번 공익 인권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사실 로스쿨 준비와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이게 내 길이 맞나 의문도 들고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기획단 분들과 저희를 담당하며 고생하신 서유진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